

창업보육센터 운영실태 분석과 육성방안  
- 인천지역 창업보육센터를 중심으로 -

2006년 4월 28일

박 경 주(인천전문대학 산학협력단 교수)



## I. 서론

우리나라의 창업보육정책은 1990년대 초반부터 확산되기 시작하여 1998년 이후 중소기업청을 비롯한 정부부처들이 보육사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창업보육센터 설립을 지원하면서부터 창업보육센터가 널리 보급되었으며 이러한 창업보육센터의 기본 역할은 창업활성화를 위해 자생력이 미약한 신생기업을 경영 및 기술 분야의 지원, 각종 정보 제공 등은 물론 각종 시험연구, 설비 지원, 창업자의 기술력을 통해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또한 창업활성화를 통하여 고용확대와 기술의 산업화를 유도함으로써 핵심기술인력 양성과 실질적 연구 중심의 중소 벤처기업 설립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 경제의 경쟁력을 제고 하는 것이라 하겠다.

창업보육센터는 산업집적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생명공학, 정보기술, 환경기술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특정산업 및 기술의 집적을 위한 수단으로도 보육기능이 활용되어 왔으나 최근의 창업보육센터는 기계공학 분야, 전기공학 분야 등 다양한 벤처창업자들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창업보육의 주요 목적 및 근본 개념은 기업발전 단계상 가장 취약한 시기인 창업 전후 단계의 기업에게 다양한 자원을 제공하여 보육 이후 기업 스스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기업의 생존율과 성장률을 높이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Smilor(1986)는 보육이란 신생기업의 발전에 유리한 “부화”를 위해 처방되고 통제된 조건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 및 의지를 의미 한다고 보았으며 따라서 창업보육시스템은 신생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제된 조건을 유지할 수 있는 시설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창업보육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즉 창업보육센터는 일반적으로 시설 및 설비의 제공, 사무·행정지원, 경영일반, 마케팅, 회계, 재무, 법률 등 각종 경영자원 그리고 다양한 기술자원의 제공을 통하여 창업자로 하여금 그들의 에너지를 조직의 경영이나 자금조달보다는 제품 및 서비스개발에 더욱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II. 창업보육센터(Business Incubator, BI)의 개념 및 체계

### 1. 창업보육센터의 개념 및 유형

#### 1.1 창업보육센터의 개념

우리나라의 창업보육정책은 1990년대 초반부터 확산되기 시작하여 1998년 이후 중소기업청을 비롯한 정부부처들이 보육사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창업보육센터 설립을 지원하면서부터 창업보육센터가 널리 보급되었으며 이러한 창업보육센터의 기본 역할은 창업활성화를 위해 자생력이 미약한 신생기업을 경영 및 기술 분야의 지원, 각종 정보 제공 등은 물론 각종 시험연구, 설비 지원, 창업자의 기술력을 통해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또한 창업활성화를 통하여 고용확대와 기술의 산업화를 유도함으로써 핵심기술인력 양성과 실질적 연구 중심의 중소 벤처기업 설립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 경제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라 하겠다.

창업보육센터는 산업집적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생명공학, 정보기술, 환경기술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특정산업 및 기술의 집적을 위한 수단으로도 보육기능이 활용되어 왔으나 최근의 창업보육센터는 기계공학 분야, 전기공학 분야 등 다양한 벤처창업자들이 늘고 있는 추세이다.

창업보육의 주요 목적 및 근본 개념은 기업발전 단계상 가장 취약한 시기인 창업 전후 단계의 기업에게 다양한 자원을 제공하여 보육 이후 기업 스스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함으로써 기업의 생존율과 성장률을 높이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Smilor(1986)는 보육이란 신생기업의 발전에 유리한 “부화”를 위해 처방되고 통제된 조건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 및 의지를 의미 한다고 보았으며 따라서 창업보육시스템은 신생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제된 조건을 유지할 수 있는 시설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창업보육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즉 창업보육센터는 일반적으로 시설 및 설비의 제공, 사무·행정지원, 경영일반, 마케팅, 회계, 재무, 법률 등 각종 경영자원 그리고 다양한 기술자원의 제공을 통하여 창업자로 하여금 그들의 에너지를 조직의 경영이나 자금조달보다는 제품 및 서비스개발에 더욱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 1.2 창업보육센터의 유형

창업보육센터의 유형은 운영 주체를 기준으로 할 경우 공공부문, 대학, 민간, 공공 또는 민간과 대학의 합작 등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공공부문의 경우 정부산하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직접 운영하는 유형으로서 대체로 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에 주된 목적을 두고 수익성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다. 대학의 경우 기술이전 및 보유기술의 상업화를 통해 경제 발전 및 창업활성화에 기여하고 대학의 재정확충을 도모할 수 있다. 민간의 경우 신기술확보, 부동산 활용 등을 목적으로 개인 또는 기업들이 운영하는 유형이다. 합작형의 경우 이상의 운영 주체들이 상호 장점을 결합하기 위한 것으로 대체로 대학의 보유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대학과 여타 주체들 간 협력하는 것이 주류를 이룬다.

운영주체별 유형 이외에도 첫째, 영리추구 여부에 따라 영리 또는 비영리 보육센터, 둘째, 지리적 위치에 따라 대학 인접, 대도시 입지 중소도시 및 농촌 입지 보육센터, 셋째, 보육대상 기업의 특성화 여부에 따라 특정산업 중심의 특성화 보육센터와 다양한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복합형 보육센터로 그 유형이 분류되고 있다.

## 2. 창업보육센터의 역할 및 운영목표

### 2.1 창업보육센터의 역할

창업보육센터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창업촉진이다. 기업의 창업적 재능을 보완하고 창업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기업을 보육하여 이들의 생존율을 높임으로서 실질적인 고용창출 기여도를 높이는 등 지역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 지역경제를 발전시키거나 기존산업의 쇠퇴에 대응하여 새로운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산업을 다변화 하는데 창업보육센터의 역할이 있다.

창업보육센터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인 기업의 생존율 및 성장률 제고 측면에서 창업보육센터의 보육효과를 미국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일반기업의 생존율이 창업 4년 후 47%, 6년 후 38%로 추정되는데 비해 보육기업의 경우, 5년 후 생존율은 80%에 이르렀으며 호주의 경우 1986년 창업보육센터를 졸업한 기업의 50%가 1994년에도 생존하고 있으나 비 보육의 경우 생존율은 5%에 불과하였다. 프랑스의 경우는 창업보육 2년 후 실패율이 8~20%였으나 비 보육기업은 31%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용 창출 측면의 경우 고용이 크게 확대되기 시작하는 것은 보육단

계가 아닌 보육 이후의 성장단계에서 비롯되며 미국 창업보육센터협회에서는 1994년도 조사를 바탕으로 졸업 기업은 1개 보육센터 당 평균 216명의 고용을 창출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미국의 졸업기업의 조사에 따르면 보육센터 입주 당시 99%가 10인 미만의 인원을 고용하고 있었으나 졸업 후에는 44%가 10인 초과, 6%가 50인 초과 고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창업보육센터의 경우 신기술기반기업에 많은 초점을 두고 있으며 지식의 중요한 산실 중 하나인 대학 및 연구기관과 연계한 창업보육센터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입주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신기술의 산업화를 보육센터가 지원하고 대학 및 연구기관의 보유기술을 입주 기업에게 동 기관 관계자의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의 지식기반 화를 촉진할 수 있다.

## 2.2 창업보육센터의 운영목표

창업자의 벤처정신으로 사업화가 가능한 아이디어를 일정한 장소에서 실험·시제품 생산에 이르기까지 기계설비의 활용과 정보의 제공, 경영 및 기술지도, 마케팅 전략 등 창업초기에 막대한 고정비 투자로 창업자금이 부족한 창업자에게는 리스크를 줄이고 자생력이 확보 가능한 일정 시점까지 보육센터에서 성장한 다음 본격적인 생산 설비 투자와 매출이 가능한 시점에 졸업이라는 수순을 밟게 된다.

재능은 갖고 있어도 경영기술이나 자금이 부족하여 창업의 리스크를 부담하는 창업자에게 창업보육센터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Allen and Rahman, 1985; Vesper, 1983; Campbell, 1984). 저렴한 공간 확보, 경영, 기술 자문, 각종정보 제공 기업의 창업과 성장에 성공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창업보육센터의 중요 운영목표라고 할 수 있다.

## 3. 창업보육센터의 재원

창업보육센터들의 재원의 원천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지원금과 입주기업으로부터 수납하는 관리비에 의존하고 있으며 전체 운영비의 자체 부담률은 해마다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아직 현재 자체조달은 40% 미만인 상태이다.

센터별로 자체 수납하는 관리비는 전체운영비의 50% 이하로서 아직 자립기반이 취약한 수준이며, 창업보육센터 운영비 사용은 창업보육센터 별 운영정책에 따라 다

소 차이가 있으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원의 지원금액과 자체관리비수납 그리고 운영기관에서 운영비보조는 센터에 따라 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의 지원을 하거나 창업보육센터 전담매니저를 기관자체직원으로 발령하여 창업보육센터 업무를 하거나 타 업무와 겸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창업보육센터의 운영비중 가장 큰 비중은 전담직원 인건비 등이 있다. 창업보육센터의 국비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외 지원은 창업보육센터 운영의 절대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 3.1 창업보육센터 재원지원 및 사업비

아래 <표 1>은 창업보육센터의 재원지원 및 사업비의 지원 유형을 보여주고 있다.

<표 1> 창업보육센터 재원지원 및 사업비

(단위:백만원)

구 분	사 업 비								비고
	합 계		국 비		시 비		자체부담		
	금 액	점유율 (%)	금 액	점유율 (%)	금 액	점유율 (%)	금 액	점유율 (%)	
총 계	17,176	100	7,375	42.94	3,800	22.12	6,001	34.94	
1998	30	100	30	100					
1999	3,224	100	1,825	56.61	200	6.2	1,199	37.19	
2000	2,351	100	1,029	43.77	500	21.27	822	34.96	
2001	2,906	100	1,300	44.74	700	24.09	906	31.18	
2002	2,161	100	865	40.03	600	27.76	696	32.21	
2003	2,602	100	997	38.32	600	23.06	1,005	38.62	
2004	1,911	100	698	36.53	600	31.40	613	32.08	
2005	1,991	100	631	31.69	600	30.14	760	38.17	

<자료: 인천시>

위 <표 1>에서 보는 것처럼, 창업보육센터 재원지원 및 사업비는 크게 국비, 시비 및 자체부담비용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1998년 100% 국비에 의해 지원되었다가 1999년부터 시비 및 국비의 지원 비율이 약65%에 달하고 자체부담비율은 국비가 상승할 때 동반상승하는 현상은 시설투자지원 시 정부지원과 매칭펀드 조건으로 증가함

을 알 수 있다. 2005년의 경우 사업비 지원은 국비가 31.69%, 시비가 30.14%, 자체부담이 38.17%로서 상호 간의 균형을 어느 정도 이루고 있다.

### 3.2 창업보육센터 별 재원지원 현황

다음 <표 2>는 창업보육센터 별 재원지원 현황을 도표로 나타낸 것이다.



<표 2> 창업보육센터 별 재원지원현황

센터명		연도별 사업비 (백만원)				비고
		합계	국비	시비	자체	
합계	계	17,176	7,375	3,800	6,001	
	1998	30	30	0	0	
	1999	3,224	1,825	200	1,199	
	2000	2,351	1,029	500	822	
	2001	2,906	1,300	700	906	
	2002	2,161	865	600	696	
	2003	2,602	997	600	1,005	
	2004	1,911	698	600	613	
인하대학교 창업보육센터	계	1,708	747	491	470	
	1998	0				
	1999	510	340	100	70	
	2000	233	73	90	70	
	2001	251	71	110	70	
	2002	180	60	50	70	
	2003	253	93	70	90	
	2004	281	110	71	100	
인하공전 창업보육센터	계	1,371	637	400	334	
	1998	0				
	1999	692	550		142	
	2000	92		90	2	
	2001	115	15	100		
	2002	172	22	80	70	
	2003	151	26	65	60	
	2004	149	24	65	60	
인천전문대학 창업보육센터	계	1,538	782	260	496	
	1998	0				
	1999	0				
	2000	0				
	2001	1,173	700	50	423	
	2002	124	22	70	32	
	2003	132	36	75	21	
	2004	109	24	65	20	
정보산업진흥원 창업보육센터	계	2,037	1,761	276	0	
	1998	30	30			
	1999	270	270			
	2000	306	306			
	2001	462	412	50		
	2002	303	223	80		
2003	315	240	75			

	2004	351	280	71	
	2005	344	273	71	
	계	376	300	76	0
여성경제인연합회 창업보육센터	1998	0			
	1999	0			
	2000	0			
	2001	0			
	2002	120	100	20	
	2003	130	100	30	
	2004	126	100	26	
	2005	125	95	30	
	계	3,224	1,117	445	1,662
기능대 창업보육센터	1998	0			
	1999	300			300
	2000	1,211	600	90	521
	2001	291	35	110	146
	2002	277	42	90	145
	2003	820	395	75	350
	2004	325	45	80	200
	2005	327	48	79	200
계	1,980	368	381	1,231	
경인여자전문대 창업보육센터	1998	0			
	1999	930	250		680
	2000	187		70	117
	2001	239	15	90	134
	2002	216	32	80	104
	2003	202	36	70	96
	2004	206	35	71	100
	2005	199	38	71	90
계	1,132	169	376	587	
재능대 창업보육센터	1998	0			
	1999	0			
	2000	208	50	70	88
	2001	204	26	90	88
	2002	200	32	80	88
	2003	391	26	65	300
	2004	129	35	71	23
	2005	255	27	64	164
계	1,819	863	495	461	
인천대 창업보육센터	1998	0			
	1999	522	415	100	7
	2000	114		90	24
	2001	171	26	100	45
	2002	569	332	50	187
	2003	208	45	75	88
	2004	235	45	80	110
	2005	260	46	79	135

<자료출처: 인천시>

### 3.3 국비와 지방비 운영비 지원 및 근거

정부에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 중기업 창업지원법 제5조 등의 근거로 창업기반 조성을 위하여 보육센터에 지원 하고 있으며 인천시에서는 창업보육센터의 관리 및 지원 방침(경제55130-309호, '99. 12. 13) 및 창업보육센터 지원 계획(경제55130-98호, 2002. 5. 18)에 근거하여 '99년부터 지원해 오고 있는 창업보육센터의 사업실적 및 자립방안 등의 제반 여건 진단을 바탕으로 창업보육 센터에 대한 계속지원 여부 및 지원규모, 지원육성 방안 등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방안을 연구 검토하고 있으며 국비와 지방비지원은 매년 평가기준에 의하여 각 센터의 운영내용을 평가하여 차등 지원하고 있다.

한편, 인천시의 창업보육센터지원 기본방침은 다음과 같다.

- ① 벤처창업 분위기 조성
- ② 대학 등 연구기관의 전문인력 활용 극대화 추진
- ③ 체계적인 창업지원시스템 마련(대학의 창업지원시스템 활용)
- ④ 창업보육센터 졸업업체 사후관리(벤처집적시설 입주 등)

## III. 창업보육센터의 운영현황 및 문제점

### 1. 운영 현황

우리나라는 1990년 12월에 창업기업을 위한 창업보육센터 설립운영 계획이 의결되고 1991년 11월 창업보육센터의 설립 운용 및 지원에 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면서 1992년 4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창업보육센터를 설립하기 시작하여 각각 정부로부터 사업자로 지정되어 각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소 등에서 운영하기에 이르렀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각 부처별로 지원하는 창업보육센터가 361개가 있다. 이중 중소기업청에서 지정하여 지원하는 306개(일반 창업보육센터 29개, 여성 창업보육센터 14개) 창업보육센터에서 4,004개의 입주업체를 보육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부의 경우 38개 보육센터에서 703개 입주업체를, 문화관광부는 10개 보육센터에서 124개 업체를, 산업자원부 6개 지역 테크노파크(TP)내의 창업보육센터에서 210개 업체를 담당하며 과학기술부는 1개 보육센터에서 87개 업체를 보육하고 있다. <표 3>에 중

양정부의 창업보육 지원사업 현황을 나타내었다.

<표 3> 중앙정부의 창업보육 지원사업 현황 (2003. 7월 현재)

구 분	창업보육센터 수	입주업체 수	비 고
중소기업청 -일반 창업보육센터	306 (292)	4,004 (3,850)	창업보육센터 여성창업보육센터
-여성 창업보육센터	(14)	(154)	
정보통신부	38	703	각 지역S/W 지원센터 대학 정보통신 창업지원센터
문화관광부	10	124	문화산업지원센터
산업자원부	6	210	시도별 테크노파크
농림부	(3)	(32)	
과학기술부	1	87	신기술창업지원단
환경부	(1)	(10)	환경기술창업보육센터
국방부	(1)	(19)	국방벤처센터
합 계	361	5,128	

자료 :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산업연구원 실태조사결과, 2003 :산업연구원

주 : ( )안은 중소기업청 예산지원으로 보육센터가 설립됨에 따라 중소기업청 통계자료에 관련 통계가 포함됨 따라서 합계산출에서 ( )안의 통계수치는 제외함.

### 1.1 인천지역 창업보육센터 현황

인천지역 창업보육센터는 인하대에서 1999년 2월 정보통신부로부터 창업보육센터 지정을 받아 인천지역에서는 최초로 운영되기 시작하여 2005년 현재 11개 기관에서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본 조사에서는 송도테크노파크(TP) 보육센터와 국방벤처창업 보육센터는 통계에서 제외하였으며 9개 보육센터에서 164개 업체를 보육 운영하고 있다. 이중 7개 보육센터가 중소기업청 지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개 보육센터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부 지정 1개, 산업자원부와 국방부 지정 보육센터는 각 1개씩 운영되고 있다. 인천지역 창업보육센터에서 그동안 배출된 졸업 기업은 184개 업체에 이르며 이중 사업을 지속하는 기업체수는 123개 업체가 있다.

<표 4> 창업보육센터 지정 현황

센터명	지정기관	지정시기 (지원기간)	중기청 지원 방침	지원 방법
계	중기청 7 정통부 2			
인천대학교 창업지원센터	중기청	'99.2(4년)	○운영비 지원기간 - 당초 3년에서 5년 지원계획으로 출 발하였으나 - 자립기반 미약 등의 상황을 반영 - 매년 평가를 통한 협약에 의한 지 원으로 전환 ○센터확장지원 - 운영비와 별도로 확장지원비 계속 지원	○운 영 평 가 에 의 한 차 등 지 원
인하대정보통신 창업지원센터	정통부	'98.7(5년)		
인하공업전문대 창업지원센터	중기청	'99.8(4년)		
기능대 창업보육센터	중기청	'00.4(4년)		
재능대 인터넷 창업지원센터	중기청	'99.8(5년)		
경인여자전문대 창업지원센터	중기청	'99.8(4년)		
인천전문대 창업보육센터	중기청	'01.3(2년)		
(재)인천광역시 정보산업진흥원	정통부	'98.9(6년)		
인천여성창업 보육센터	중기청	01.1(3년)		

주 : 송도테크노파크 창업보육센터, 국방벤처 창업보육센터는 제외

## 1.2 인천시 창업보육센터 지원 현황 및 실적

인천시에서는 당초 자립기반 구축 가능기간을 3년 동안 지원( '99. 12. 13 방  
 침)을 결정 하여 지원하기 시작하였으나 창업보육센터의 자립기반 환경조성 미약으로  
 지원 기간을 5년으로 연장( '02. 5. 18 방침)하여 지원하고 있다.

<표 5> 인천시 창업보육센터 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최초지원년도
합 계	2,600	200	500	700	600	600	600	
인천대학교	415	100	90	100	50	75	80	1999
인하대학교	420	100	90	110	50	70	75	1999
인천전문대학	195	-	-	50	70	75	65	2001
인하전문대학	335	-	90	100	80	65	65	2000
인천기능대학	365	-	90	110	90	75	80	2000
재능대학	305	-	70	90	80	65	71	2000
경인여자대학	310	-	70	90	80	70	71	2000
정보산업진흥원	205	-	-	50	80	75	-	2001
여성창업보육센터	50	-	-	-	20	30	-	2002

※ 2003년도 총사업비 2,067백만원(국비 707, 시비 600, 자체 760)

## 2. 사업운영 실적

### 2.1 입주기업 운영실적

인천지역 창업보육센터의 운영 실적은 1998년도 창업보육센터의 출범이후 1999년도 2개, 2000년도 6개, 2001년도 8개, 그리고 2002년도부터 9개 보육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인천지역 창업보육센터 전체적 입주업체수의 증가는 매출액의 증가와 함께 신규고용창출이 꾸준히 증가 하고 있다. 입주업체의 증가와 입주업체의 지적재산권출원 건수 역시 큰 폭으로 증가 하고 있으며 평균전체 입주업체 대비 93%의 지적재산권 출원 건수를 보이고 있다.

<표 6>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운영실적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비				입주업체	고용인원	매출액	졸업체	지적재산권출원	시지원센터수
	계	국비	시비	자체부담						
총계	10,649	4,859	2,600	3,190	686	3,798	164,876	212	668	
1998	30	30			25	126	-	2	2	
1999	3,224	1,825	200	1,199	48	416	2,677	11	2	2
2000	2,351	1,029	500	822	140	804	18,900	32	85	6
2001	2,906	1,300	700	906	151	816	20,557	53	81	8
2002	2,161	865	600	696	158	773	26,123	55	111	9
2003	2,602	997	600	1,005	164	863	33,919	31	152	9
2004	1,911	698	600	613	157	724	62,700	28	235	9

※ 매출액에 627억중 수출액(94억원으로 전년45억대비 210%증가) 포함, 국비에 설립비 포함

## 2.2 2004년 센터별 운영실적

인천지역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157개에서 매출액은 62,700백만원으로 업체 당 평균 399억원의 매출실적을 보였으며, 고용인원은 724명으로 평균 4.6명의 고용 창출이 발생하였다. 다음은 각 창업보육센터 별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표 6>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운영실적

(단위:백만원)

센터명	2004사업비				입주업체		고용인원		2004매출액		졸업업체		사비지원 년도
	계	국비	시비	자체부담	수	%	수	%	수	%	수	%	
합계	1,911	698	600	613	162	100	724	100	62,700	100	212	100	
인천대학교 창업보육센터	235	45	80	110	17	10.49	79	10.91	7,000	11.16	21	9.91	1999
인하대정보통신 창업지원센터	281	110	71	100	26	16.05	152	21	19,900	31.74	29	13.68	1999
인천전문대학 창업보육센터	109	24	65	20	9	5.56	30	4.14	1,800	2.87	8	3.77	2001
인하전문대학 창업지원센터	149	24	65	60	10	6.17	35	4.83	1,006	1.6	18	8.49	2000
기능대 창업보육센터	325	45	80	200	41	25.31	135	18.65	10,800	17.22	48	22.64	2000
재능대 인터넷 창업지원센터	129	35	71	23	22	13.58	74	10.22	1,900	3.03	11	5.19	2000
경인여자전문대 창업지원센터	206	35	71	90	12	7.41	78	10.77	12,900	20.57	32	15.09	2000
(재)인천광역시 정보산업진흥원	351	280	71	-	19	11.73	123	17	6,000	9.57	39	18.40	2002
인천여성창업 보육센터	126	100	26	-	6	3.70	18	2.49	800	1.28	16	7.55	2002

※졸업기업 괄호 안은 계속 기업수입

## 2.3 2004년 졸업기업 운영실적

<표 7> 2004년 졸업기업 운영실적

(단위 : 백만원, 천달러)

센터명	졸업 기업 수	졸업기업 중 사업 기업 수	종사자 수	매출액	수출액
계	212	143	417	29,750	8,700
인천대학교 창업지원센터	9	6	23	370	310
인하대정보통신 창업지원센터	19	15	152	13,100	
인천전문대학 창업보육센터	6	3	8	430	610
인하전문대학 창업보육센터	13	6	19	820	-
기능대 창업보육센터	48	29	134	9,070	1,530
재능대 창업지원센터	11	6	10	132	600
경인여자전문대 창업지원센터	25	15	51	3,240	730
(재)인천광역시정보산업진흥원	70	56	7	1,748	920
인천여성창업 보육센터	11	7	13	410	-

※ 종사자수, 매출액, 수출액은 84개 업체 자료임

## 3.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운영실태 조사

### 3.1 조사 개요

본 조사는 인천지역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 현황 및 평가 등 창업보육센터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창업보육센터 육성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자 비롯되었으며, 그 대상은 인천지역 창업보육센터 9개 기관 164개 입주업체 중 약 43%인 71개 업체로 한정하였다.

창업보육센터업체들의 최근 내수 경기악화는 매출의 급격한 하락과 함께 내부직원의 자연적 감소 현상으로 업체 대표자가 개발과 생산·판매 내부관리 등 1인 다역의 과중한 업무로 근무의욕의 저하 내지 상실 지경에 이르는 업체가 많은 관계로 설문응답에 응해주는 대표자가 부족하였으며 각각의 기업내부 사정을 정확히 질문에 응하지 않았을 수도 있음을 밝혀두고자 한다.



### 3.2 설문조사 결과

#### 3.2.1 창업에 대한 동기 및 창업보육센터 입주 이유

<표 8>은 창업 동기 및 창업보육센터 입주 이유에 대한 설문결과로서 창업자들은 사업동기에 대해, 사업경영 목적을 가장 비중 있게 생각하였으며 기술아이디어 사업화와 새로운 분야도전도 전체적으로 주요 창업의 동기로 파악되었다. 이는 창업자들의 성공률이 대체적으로 저조한 것은 기술이 성공이라는 등식은 일치 하지 않는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전 직장에서 노하우 취득 후 창업은 약 10% 수준의 응답을 고려한다면 전 직장에서 노하우 벤치마킹식의 창업은 창업의 주요 동기는 아닌 것을 보여주고 있다.

창업보육센터 입주 이유에 대한 설문에서는 저렴한 임차비용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자금조달 및 기업 이미지 제고에를 위해 입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반적으로 창업보육센터의 직·간접적으로 지원을 기대하는 것은 고른 분포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8> 창업에 대한 동기 및 창업보육센터 입주 이유

	적 요	응답자	백분율(%)
	창업동기	사업경영 목적	23
주위의 권유로		6	8.45
기술아이디어 사업화		19	26.76
새로운 분야도전		16	22.53
전 직장 노하우 취득 후		7	9.86
합 계		71	100
창업보육센터 입주 이유		적 요	응답자
	저렴한 임차관리비	27	38.03
	주위의 권유	8	11.27
	정책자금 조달 용이	14	19.72
	기업이미지 제고	10	14.08
	경영·기술지도 수혜	7	9.86
	각종 정보입수 용이	5	7.04
	합 계	71	100

#### 3.2.2 창업자의 개인 이력

<표 9>는 창업자의 개인 이력을 분석한 결과이다. 창업자의 성별 분석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국민의 정부에서부터 여성 우대 또는 지원 장려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책의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해보고자 창업자의 성별을 조사하였다.

여성의 비율은 전체의 13%에 불과하였으며, 일반 서비스업종, 요식업종, 판매업종 등 소상인 창업이 아닌 연구개발, 생산 판매를 주 업종으로 하는 창업보육센터 업체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이는 적은 수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으나 여성에게 있어서 직무상 취득 가능한 아이디어의 한계 및 창업자의 도전의식, 경제 여력 등은 아직도 여성들의 한계에 있음을 본 조사는 보여주고 있다.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창업자의 학력은 대졸 이상이 거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으며, 대졸 이상인 창업자는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여 대체적으로 고학력자들의 창업이 두드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창업자의 경력분포는 대부분 동종 업종에서 근무경력을 중심으로 창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창업과 동시에 매출 가능성이 있을 때 창업에 착수하고 있으며, 전 직장 근무 중 취득한 경험이 창업의 주요근간을 이루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이디어 창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을 보여주었다.

<표 9> 창업자의 개인 이력

성별	남								여				
	61%								10%				
	87%								13%				
창업자의 학력	구 분		고졸 이하	고졸 이상	전문대졸	대졸 이상	석사	박사	합계				
	응답자		1	2	13	31	15	7	71				
	백분율(%)		1.41	2.82	18.31	43.66	21.13	9.86	100				
창업자의 경력	구 분	동종 업종 근무 후 창업								아이디어 창업		합 계	
		3년 이내		3년 이상		5년 이상		10년 이상		응답자	점유율	응답자	점유율
		응답자	점유율	응답자	점유율	응답자	점유율	응답자	점유율				
		9	12%	16	22%	22	31%	13	19%	11	16%	71	100

### 3.2.3 창업 자본, 종사자 수 및 부채

<표 10>은 창업 자본, 종사자 수 및 부채에 대한 조사결과로서 창업자금조달은 전체 창업자의 78.8%가 5천만원 내외의 창업자금을 기반으로 창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대부분 창업 아이템 또는 기술력으로 창업성공을 목표로 하고는 있으나 창업자의 자금기반조성이 매우 취약한 상태로 창업하고 있으며 운전자금을 비롯한 창업자금의 소진 후에는 자금조달의 애로를 절감할 것으로 사료된다.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84%는 종사자수가 10명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연, 지연 등 근거리 주위사람들과 창업자와의 마인드 일치로 조직구성이 이루어져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매출의 향상으로 사세 확장 및 직원채용이 가능한 업체는 입주업체에서 졸업을 하게 된다.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62%가 5천만원 내외의 부채를 갖고 있으며 부채가 없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대부분 자금의 애로를 느끼면서도 정책자금 조달 방안을 모르거나 담보력부족 또는 신용보증서발급을 받지 못하여 자금조달이 어려운 업체들이 대부분이다.

<표 10> 창업 자본, 종사자 수 및 부채

구분	5,000만원 이내		5,000만원 이상		1억 이하		1억 이상	
자기자본	32		24		9		6	
	45%		33.8		12.7		8.5	
종사자수	5명 이내		10명 이내		15명 이내		15명 이상	
	39		21		8		3	
	55%		29%		11%		5%	
부채	구분	없음	5천만원 이내	5천만원 이상	1억 이상	2억 이상	합계	
	정부정책자금		12	14	8	3	12	
	은행 자금		9	7	5	2	9	
	기타			2		1	0	
	합계	응답자	8	21	23	13	6	29
	점유율	11.26	29.58	32.39	18.31	8.45	100	

### 3.2.4 업체의 전반적인 현황

<표 11> 업체의 전반적인 현황

지적재산권 현황	특 허		실용신안권		기 타		합 계			
	76		41		64		181			
	42%		23%		35%		100%			
업체인증 현황	벤처기업		유망 중소기업		이노비즈 기업		기타 인증		합계	
	26		5		4		11		46	
	56.52%		10.87%		8.70%		23.91%		100%	
매출현황	1억 이내		1억~3억		1억~3억		5억 이상		합 계	
	11		40		16		4		71	
	15.50%		56.33%		22.54%		5.63%		100%	
수출현황	1억 이내		1억~3억		1억~3억		5억 이상		합 계	
	4		9		6		3		22	
	18.18%		40.91%		27.27%		13.64%		100%	
생산형태	자체생산			외주가공생산			합 계			
	21			50			71			
	30%			70%			100%			

창업보육센터의 입주기업의 지적 재산권 취득현황은 특허가 42%, 실용신안권 획득업체가 23%로서 자기 개발능력을 갖추고 있거나 향후 자사 브랜드 제품을 독자적으로 연구 개발 생산이 가능한 업체들이라고 할 수 있으나, 1개 업체가 다수의 지적 재산권 보유한 경우도 있으므로 이는 개별업체 별 분석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그 외 35%는 지적재산권이 없어서 독자적으로 연구 개발 생산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각종 인증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등의 지원으로 각종 인증서를 취득하고 있으나 아직 미약한 수준이다. 창업보육센터의 입주요건 중 각종인증서는 입주업체 심사 시 강제요건이 아니며 입주 후 취득가능 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입주기업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인증서 획득을 하고 있다.

기타 제품인증서, 시스템인증서 등은 마케팅 전략차원으로 획득하는 경우가 많아 개발단계 업체는 그 필요성을 많이 못 느끼는 경우가 있다. 본 조사결과 응답기업의 64.79% 만이 각종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기업 전체에 대하여 조사한다면 인증서보유율은 상대적으로 더 낮을 것으로 보여 진다.

참고로, 벤처기업 인증요건 중 지적재산권해당 제품의 매출액이 50%이상이거나 신기술로 인증을 받거나 혹은 벤처캐피탈의 기업납입 자본금의 10%이상 투자 업체만이 가능하다.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들의 매출을 보면 1억에서 2억 매출이 대종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개발단계에서 매출이 전혀 없는 경우도 10%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3억 이상 매출가능업체는 고용확대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고 볼 수 있다.

수출은 전체 입주업체의 약 30%가 수출을 하고 있으며 개발 제품 중 아직은 내수위주 판매를 하고 있어 내수 시장의 한계와 창업자들의 마케팅 능력의 부족현상은 향후 업종별 국내 및 해외 박람회를 통한 제품홍보와 수출지원을 위해서는 시장개척 지원이 시급히 필요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자체 소프트웨어개발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를 제외한 개발생산업체의 경우 생산 공장 및 설비 등을 미확보 상태에서 대부분 외주 생산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한정생산은 생산원가의 고비용을 초래하고 있으며 제조원가의 하락요인은 생산량의 적정 생산규모로 1차 외주협력사와의 생산원가 협약이 가능하다. 이는 운전자금의 회전을, 경상이익율, 당기 순이익율 등 기업경영분석에서도 중요 지수요인이기도 하다.

### 3.2.5 기타

창업자에 대한 애로사항을 파악한 결과, 판매, 자금조달, 인력구인, 연구장비 부족, 관련정보 부족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의 가장 시급한 애로사항은 판매와 자금조달임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자금조달의 경우 자기자본은 45% 내외이며 40% 수준이 정부자금 및 은행차입 자금을 활용하고 있으며 10% 정도가 투자자본에 의존하고, 나머지 5%는 정부 기술개발비 지원 자문에 의존하고 있어 창업초기의 업체들의 운영 및 개발자금의 열악함을 보여 주고 있다.

한편, 창업보육센터 입주만족도 조사에서는 창업보육센터 지원 사항으로서 자금조달 정보안내, 개발된 제품 박람회 및 홍보지원, 지적재산권 획득정보 및 지원 분야에서는 대체적으로 양호한 만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영·기술지도 지원, 각종 세미나 등 정보획득지원, 각종 교육여건조성 지원에서는 보통수준이라고 응답하

였다.

입주 후 기업성과에 대한 설문에서 기술개발과 매출액의 증가에는 대체적으로 양호한 반면 자본조달, 당기순이익에서는 보통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창업보육센터 관련 사항으로 입주기업 선정기준, 센터의 현 운영방식, 센터관리비 등 대체적으로 보통 이하의 평가결과는 입주업체들의 센터지원에 대한 기대가 흡족하지 못한 상태는 향후 보육센터운영의 관리중심이 아닌 보육중심으로의 운영을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4. 창업보육센터 운영상의 문제점

이상에서 살펴본 창업보육센터 운영실태 및 조사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창업보육센터 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입주업체가 창업보육센터의 특화 분야별로 동종의 업종이 같은 센터에 입주하여 정보의 공유, 마케팅의 공동전략 등을 모색해야 하나 대부분 이업종으로 공동 대처능력의 저하를 가져오고 있다.

둘째, 창업초기의 업체의 경우 관리비의 부담 및 연구개발비의 부족, 전문 인력부족 등의 애로사항이 많다. 즉, 국가 전체적으로 기술사업화를 목적으로 투자되는 자금의 절대 규모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02년기술이전사업화에 투입되는 자금 규모는 약 485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당해연도 국가연구개발예산 5조 6,091억원 중 약 1.1%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국가연구개발예산 중 약 98.9%가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에 활용되고 있지만, 기술개발 결과를 실용화하기 위한 정책 지원은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창업보육센터의 예산부족 및 기타 요인으로 인한 지원 사항 부족은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창업기업들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기술이전·사업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직과 시스템이 결여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최근 산업자원부는 “신기술사업화팀”을 조직하고 관련 사업을 통합·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기술이전·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다수의 사업이 서로 다른 법적 근거를 가지고 서로 다른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기술이전·사업화 관련사업을 시스템적 통합이 필요하다. 최근, “성과평가법”의 추진, 부처별 연구개발예산 할당제도의 도입 등 과학기술과 관련된 정부의 관리 방식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변화되는 환경에 유기적으로 적응하고, 이와 아울러 환경변화가 목표로 하고 있는 시스템적 효율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관련사업의 틀을 시스템화하고, 성과중심의 예산배분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신기술사업화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사업자 평가 및 지원 체계의 미흡을 들 수 있다. 신기술보육사업은 기술의 사업화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기술성뿐만 아니라 사업화 가능성에 대한 심도 있는 평가가 필요하다. 신기술보육사업의 운영의 경우 평가의 절차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평가기준 및 배점에 관한 사항은 사업 안내 책자를 통하여 제시하고 있다. 사업안내 책자에 수록된 평가항목을 살펴보면, i) 창업자 관련사항, ii) 기술성, iii) 사업성, iv) 사업 준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항목별로 지표만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신기술보육사업의 관리기관인 테크노파크는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자 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보완하고 있다. 한편, 전문위원회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의 결과는 운영위원회에 상정·심의되고 있지만, 각 관리기관별로 주관적인 판단으로 선정된 결과를 종합적으로 심의하기에는 평가결과의 객관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 신기술사업자를 혁신선도 중소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사업의 초기단계에서 본격적인 생산, 시장창출, 추가적인 기술개발 등을 충분히 고려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특히, 창업자의 부족한 기업 경영능력을 보완·지원하기 위한 역할을 담당하는 테크노파크 및 창업보육센터의 전담인력의 경우에도 인력 부족, 경험 축적의 불충분성 등으로 인하여 기업경영 및 성장에 필요한 적절한 정보와 네트워크 제공이 어려운 실정이며, 이에 따라서 신기술사업자의 시장 창출이 지연 또는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

마지막으로 후속사업 연계지원 체계의 부재를 꼽을 수 있다. 신기술보육사업을 완료한 신기술사업자의 경우 시제품 개발에 성공하였지만, 여전히 시장 진입 장벽의 존재, 자본 시장을 통한 자금 획득 곤란, 정부 지원 프로그램의 요건 미충족 등 혁신선도 중소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장애요인을 안고 있다. 신기술사업자가 혁신선도 중소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기술혁신이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정부연구개발사업이 참여자격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에 곤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창업보육센터 운영 관련 제반 여건의 경우 자립 환경 조성여건이 매우 취약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공부담금제도 실현여건의 미흡이다. 보육에 대한 보상으로 주식 또는 매출액의 일정부분을 수취하는 성공부담금 제도는 스타기업 육성이나 코스닥 등록 여건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각 기관 센터에 따라 성공 부담금을 줄이거나 폐지 방향으로 선회하고 그 대신 기관 또는 창업보육센터 발전기금을 선불 또는 후불 납입 제도를 점차 선호하고 있는 편이다.

둘째, 창업보육부담금 인상(유료화)은 사업 취지에 배치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현재 가능한 방법으로 관리비 인상, 지원 장비 및 지원서비스의 유료화 등의 단기적 방안이 있으나 이는 창업기반을 다지고 있는 입주업체의 입주 동기 및 사기 저하, 자금난 가중 등으로 창업보육센터의 운영취지 약화 및 기능이 상실될 우려가 있다.

셋째, 단기간 내 보육실 규모 확장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중앙부처의 확장사업 지원이 각 시도별, 일정규모로 매년 지원되고 있으나 각 창업보육센터의 보육실 수의 증축은 창업보육센터의 예산의 한계로 인하여 지원금의 한계와 대응투자 조건은 단기간 내 센터 확장 자금 확보가 어려우며 아울러 교내부지 확보에도 애로점을 가지고 있다.

## 5. 인천지역 창업보육센터의 운영 평가

### 5.1 입주기업 실적

인천지역 창업보육센터 지원은 인천시에서 '99년부터 총 10,649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국비 4,859백만원, 시비 2,600백만원, 자체부담 3,190백만원) 686개 입주업체가 3,798명의 고용을 창출하였고 102,176백만원의 매출액을 발생시킴으로써 비교적 적은 투자금액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총 433건에 달하는 특허 및 실용신안 등을 출원하여 높은 사업 열의를 보이고 있으며, 입주 및 졸업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일반경영지원, 기술지원, 마케팅지원, 세무·회계지원 등과 같은 활발한 창업지원을 하고 있다.

### 5.2 졸업기업 실적

창업보육센터가 배출해낸 졸업기업의 실적으로는 2004년 말 기준으로 184개의 졸업 기업 중 123개 기업이 사업 중에 있고, 391명의 고용창출과 34,373백만원의 매출실적을 올렸으며 매출액 중 2.24%인 773만 달러의 수출액을 보이고 있다.

졸업기업 생존율이 66.8%이고 졸업기업 당 연간 평균매출액(409백만원)이 입주기업의 평균매출액(202백만원)의 2배 이상에 달함으로써 창업이 정착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5.3 인천지역 창업보육센터의 운영평가

### 5.3.1 평가 대상

정부의 창업보육센터 정책의 효율적 운영방안과 창업보육센터의 자립기반 정착지원을 위한 창업보육센터의 실태파악 등 다목적용으로 매년 자체평가와 평가기관 용역의뢰 형태로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98년 인천지역의 창업보육센터 태동 이후 2004년말까지 정보통신부 지정기관 1곳과 인천시 재정지원기관 2곳을 제외 한 7개 기관이 중소기업청 지정 창업보육센터이다. 창업보육센터마다의 특화사업을 기본으로 운영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평가 대상으로 설정한 10개 기관 창업보육센터로 한정하여 조사하였다.

### 5.3.2 운영평가 기준

우리나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창업보육센터의 운영정책 중 재정지원과 창업의 저변확대지원을 위한 사업의 일환이나 부처별 평가 기준은 상이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 창업보육센터를 평가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는 창업보육센터 정책을 평가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이에 부합하기 위한 창업보육센터 평가기준으로 적합성과 효율성, 효과성의 개념을 검토 하고자 하며 이를 다음 표에 요약하여 정리하였다.

### 5.3.3 지원기관 종합평가

중소기업청의 창업보육센터 평가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추진된 구조조정의 원활화와 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 모색 등의 당면과제에 대응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는 기반을 조성하였다는 점에서 사업의 필요성은 매우 컸다. 더구나 창업 활성화는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적 과제인 지방 산업의 발전에도 핵심적인 필요조건이라는 점에서 창업보육사업은 지역균형 발전 정책과도 높은 일치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창업보육센터는 기업의 생존율 및 성장률을 제고하고 특히 벤처기업의 특성인 모험성의 완화와 혁신성의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 전체 차원에서의 수요에 부합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정보통신부 창업보육센터 평가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근 IT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IT산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을 위한 소프트웨어 분야의 창업활성화와 벤처기업 육성의 필요가 있다. 소프트웨어산업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기반 강화를 위한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사업의 필요성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정책적 효과성 측면에서 정부에서 계속지원의 필요성과 비교적 양호한 평가를 하고 있다.

특히 신규 고용창출과 산학연 연계기술개발효과는 지방재정지원기관 창업보육센터보다 대학에서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의 매출증가율 및 고용창출력이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 <표 12>에 창업보육센터 평가항목 및 기준을 요약·정리하였다.

<표 12> 중소기업청 창업보육센터 평가항목 및 기준

구분	항 목	내 용	평가 배점
보 육 시 스 템 (23)	기관장추진의지	보육센터의 활성화에 필수적인 기관장의 보육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도 측정 - 센터장, 매니저의 임기보장 규정화 등 전문성확보를 위한 시스템 및 보육센터 관련 대외 활동 수준 평가	3
	입주자 선정시스템	입주자 선정시운영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결정	3
	입주기업평가 시스템 수행	분기별 또는 반기별 입주기업의 사업 진행도 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보육 및 퇴거 기준으로 활용 여부	2
	졸업기업관리 시스템	졸업기업의 지속적인 보육을 통한 성공불제의 실현 또는 산, 학 협력사업의 수행 여부 체크	4
	창업보육센터의 네트워크 구축	기관(센터)의 입장에서 활용 가능한 대기업, 벤처캐피탈, 중소기업지원 유관, 자문위원회, 지역 중소기업, 지자체, 사회단체 등 네트워크 구축 정도 및 실제 활용사례	5
	재정자립도 제고	재정적인 자립성 강화노력 관리비 연차별 차등 징수, 기관의 지자체 외부 기업 활용 실적(유료) 성공불제 등 도입	3
	창업 넷 관리	창업보육센터의 운영 현황 및 입주 졸업기업의 운영성과의 정확성 유지	3
전 문 성 (25)	센터장 평가	센터장의 전문성, 센터근무경력, 보육실적의 업적평가 반영 여부	8
	매니저 평가	매니저의 전문성, 센터 근무경력, 보육실적의 인센티브 반영 여부 등	17
지 원 서 비 스 (24)	경영, 기술, 지원서비스	회계, 법률(특허), 일반경영 컨설팅, 마케팅, 기술개발, 창업지도 등에 대한 지원서비스 체계 구축	10
	정부 지원제도 활용 지원(산학연 사업의 연계성)	중기청, 타부처, 지자체 지원 제도의 입주 졸업기업 활용 실적	4
	우수 운영사례 (본청평가)	창업보육센터의 운영기법이나, 입주(졸업)기업 지원 사례 제출-다센터 적용가능성, 운영조직의 적극적인 노력 등을 평가	10
운 영 성 과 (28)	보육실 운영율	03년말기준 입주기업수/ 보육실수	5
	매출액	입주업체당 매출액, 센터전체의 매출액	2
	벤처확인율	벤처기업수/ 입주기업수 또는업체수 기준병행	2
	고용창출	센터전체의 '03년 입주기업 신규고용 인원(정규직)/입주업체수	5
	투자 및 융자유치실적	벤처캐피탈(창업투자회사) 투자 업체수 자금융자(정책자금, 보증포함) 업체수	4
	수출실적	수출실적 보유 업체수	2
	입주, 졸업기업 성공사례	졸업기업이나 입주기업의 성공사례 제출 실적	5

## IV. 창업보육센터 육성방안

1998년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해온 우리나라 창업보육정책은 중소기업 육성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반구축에 기여함과 아울러 고용창출, 아이디어제품 출시 매출증대, 지적재산권 획득, 산학연 연계기술개발 과제 수행 등에 있어 높은 성과를 시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7월 현재 중앙부처가 지원하는 361개 창업보육센터의 지역별 분포 현황을 보면 수도권에 31.3%인 113개소, 동남권에 98개소, 중부권에 66개소, 서남권 55개소, 기타 29개소로 나타났다. 중앙정부의 창업보육센터 육성추진 상황을 보면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지원하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향후 창업보육센터는 중앙정부의 지원과 지방자치단체 각 지방의 특화 주도사업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창업보육사업이 1998년 이후 외한위기 극복과정에서 중소기업 육성이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되면서 창업보육사업이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되어오고 있으나 향후 지역특성에 부합한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창업보육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혁신체제 구축 정도와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지방으로의 이양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2004년 1월에 중소기업 특별위원회, 산업연구원 주최로 창업보육정책관련 토론회에서 제기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창업보육센터를 지원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창업보육센터 지원육성을 통한 사업의 효율화 제고와 물리적 시설 위주의 창업보육사업은 정부산하 각 기관들이 공동으로 자금을 출원하고 경영, 기술, 법률 등 소프트웨어적인 지원기능을 확충하여야 한다.

둘째, 창업 초기단계 보육기능에 치중하여 기업 성장단계로 부응한 보육기능 함양과 창업보육센터 간 공동사업을 통한 운영의 효율화 및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각 창업보육센터의 업종별 특성화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 특화 산업육성 등 지역경제 발전과 연계한 창업보육사업 육성의 특성화 및 입주 업종의 전문화 유도방안에 주력하여 경제효과 증대 및 효율적인 창업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한다.

넷째, 경영, 마케팅, 기술 지원 등 각종 서비스 지원의 질적 제고를 위한 전문가 pool 활용 공동투자 설명회 및 창업 강좌 등 창업유도 정보제공을 위한 공동사업 개최를 통한 사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졸업기업의 지역정착 및 지역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POST-창업보육센터(송도테크노파크 04. 10)로의 입주를 유도하며 졸업기업

업체 간 커뮤니티 형성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신기술창업을 적극 유도하여 신기술창업을 통한 혁신선도형 중소기업의 신규 창출을 장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신기술창업(TBI)을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의 창업보육의 방향을 신기술창업으로 적극 제안하고자 한다.

신용보증기금(2004)의 자료에 의하면, 아래 <표 13>에서 보듯이 일반 창업기업의 5년 간 생존율은 약 38%에 불과한 반면, 신기술창업(TBI) 사업자의 약 75%가 시장에서 지속적인 기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신기술창업을 보다 경쟁력 있는 창업모델이 될 것이다.

<표 13> 창업보육센터 입주 기업의 생존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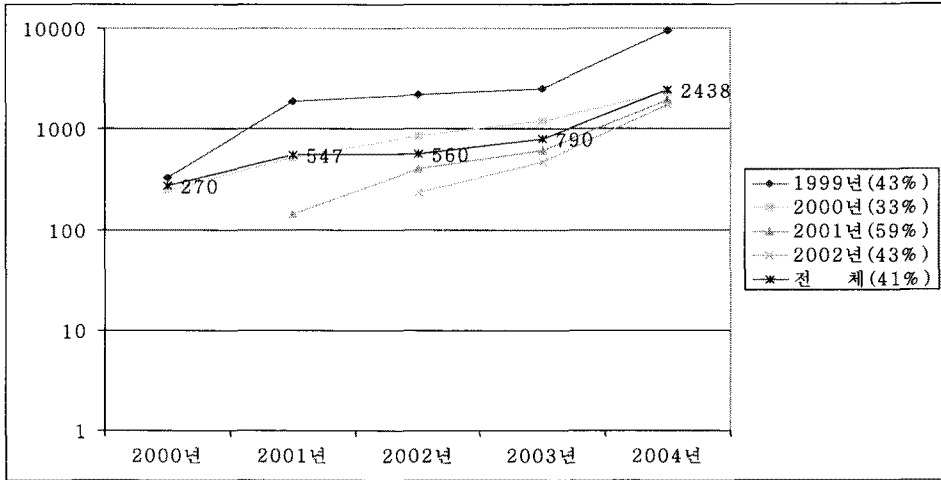
사업연도	지원업체(개)	생존기업(개)	미확인기업(개)	생존율
1995~1998년 사업자	106	86	30	81.1%
1999년 사업자	245	164	81	66.9%
2000년 사업자	283	187	96	66.1%
2001년 사업자	315	250	65	79.3%
2002년 사업자	225	195	30	86.7%
합 계	1,174	882	302	75.1%

신기술창업 사업자는 업체 당 평균 약 8억원(2003년 기준)의 매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연평균 41%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벤처확인기업의 평균 매출 성장률은 19.2%인데 반해, 일반 중소기업은 10.2%에 그치고 있다. 신기술창업 사업자의 평균 매출규모 및 성장률은 다음 <표 14>와 같다.

<표 14> 신기술창업 사업자의 평균 매출규모 및 성장률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전망)	연평균 매출증가율
1999년 사업자	329.1	1,907.4	2,213.7	2,536.9	9,468.6	43%
2000년 사업자	245.2	523.3	855.7	1,192.9	2,293.1	33%
2001년 사업자	-	143.9	403.0	608.4	1,953.3	59%
2002년 사업자	-	-	231.6	470.7	1,753.2	43%
전체 사업자	270.2	546.6	559.5	789.6	2,438	41.1%

<그림 1> 신기술창업 사업자의 평균 매출규모 및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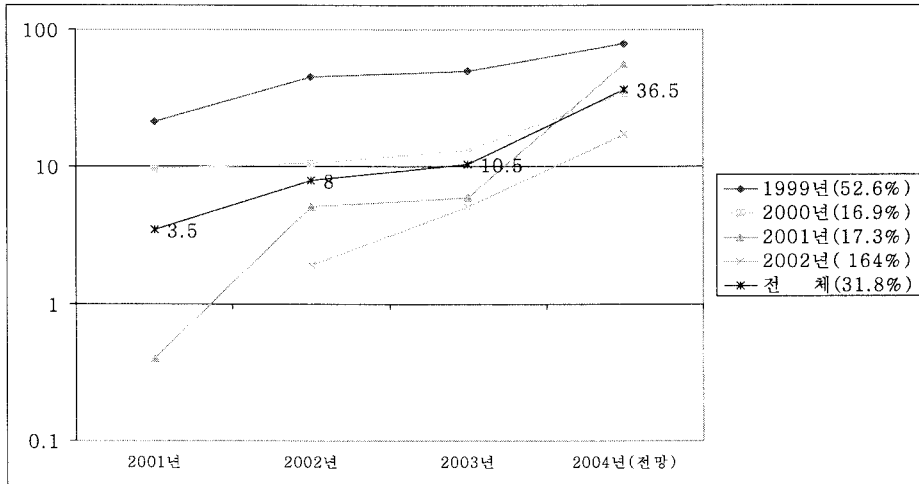
또한, 현재까지의 신기술사업화 성공으로 인해 국내외 제품경쟁력 확보 및 수출 증대 효과를 가져왔다. 전체사업자 중 약 36%가 수출 활동을 영위하고 있으며, 수출 증가율은 연평균 32%에 달하고 있다. 신기술 창업사업자의 평균 수출규모 및 성장률은 다음과 같다.

<표 15> 신기술 창업사업자의 평균 수출규모 및 성장률

(단위 : US\$ 10,000)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전망)	연평균 수출증가율
1999년 사업자	21.4	45.3	49.8	79.1	52.6%
2000년 사업자	9.7	10.7	13.2	34.3	16.9%
2001년 사업자	0.4	5.1	6.0	56.5	17.3%
2002년 사업자	-	1.9	5.1	17.4	164%
전체 사업자	3.5	8.0	10.5	36.5	31.8%

<그림 2> 신기술 창업사업자의 평균 수출규모 및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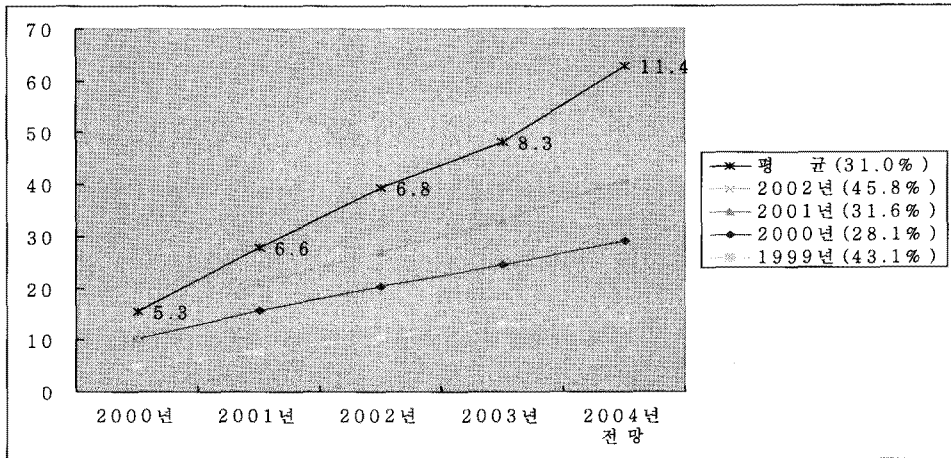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신기술 창업은 사업자 평균 8명의 신규고용 창출을 이룸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신기술 창업 사업을 통해 2003년 기준으로 기업 당 평균 8.3명의 고용을 창출하였으며 신규고용 중 평균 4명은 연구개발 인력으로서, 석·박사급 고급과학기술인력의 신규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신기술 창업의 고용창출에 관한 자료를 다음 <표 16>에 정리하였다.

<표 16> 신기술 창업의 고용창출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전망	연평균 고용증가율
1999년 사업자	4.8	7.7	10.7	13.0	14.2	43.1%
2000년 사업자	5.5	8.0	9.7	11.5	15.0	28.1%
2001년 사업자	-	5.5	6.7	8.6	11.7	31.6%
2002년 사업자	-	-	5.4	6.9	10.6	45.8%
평균고용인원	5.3	6.6	6.8	8.3	11.4	31%

<그림 3> 신기술 창업의 고용창출





## V. 결 론

신기술창업을 지원하는 신기술보육사업은 1991년 처음 시작된 이후 약 15년간 창업을 통하여 개인이 축적하고 있는 기술력을 사업화하려는 약 1,200여명의 기업가를 지원해 왔으며, 초기단계 또는 예비창업단계의 신기술기업을 지원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벤처 붐이 사라진 이후 수요감소와 함께 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희석되면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왔으며, 사업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부존자원이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기술과 지식이 가치창출의 핵심으로 등장하고 있어 국내경제는 물론 국제경제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중소 벤처기업의 육성이 국가적 과제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천지역 창업보육센터 운영현황과 실태를 살펴보았다. 다만 본연구의 표본을 인천지역의 창업보육센터로 제한하였으므로 우리나라 전체 창업보육센터의 결과라고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지역경제발전을 위하여 지역특화 산업 발전 방향으로 창업보육센터들이 특화 사업을 중심으로 발전방향을 제고한다면 창업보육센터의 역할은 국가발전에 초석이 되는 지원기관으로 거듭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를 통해 창업보육센터의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창업보육센터의 재정적 지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산하기관 공동 지원 및 공동출연 체제의 제도화를 제안한다.

둘째, 창업보육센터 전담 전문 인력은 신분보장으로 장기근속 유도는 물론 창업보육센터의 향후 계획의 일관성 있는 추진의 보장을 제안한다.

셋째, 창업보육센터를 통한 경제효과를 제고하고 기술 집약형 산업구조로의 유도 방안은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의 업종의 전문화, 기술고도화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입주업체지원 방안으로 입주업체 대표자, 핵심인력, 업종의 성장가능성 등 경영분석 중 정성분석을 중심으로 각 창업보육센터 전담 전문매니저의 평가와 의견으로 정부기관 및 지방정부에서 중소기업 자금 지원 시 활용토록 하며 그 책임과 의무의 일부를 전담 전문매니저들의 분담을 하고 입주업체의 일정기준(평가)성공 시 졸업기업으로 분류할 것을 제안한다.

넷째, 창업보육센터는 기관소속 독립기관으로 육성 및 발전시켜 나아갈 것을 제안한다. 현재 각 대학에서는 산학협력단 소속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는 자율적 센터 운영에 제약사항이 되고 있으며 입주업체로부터 수납하고 있는 관리비명목의 비용징수 역시 세금계산서 발행의 의무사항 등 업체지원, 센터운영에 자율성이 배제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다섯째, 지방 특화에 따른 지역 소재 창업보육센터의 육성을 제안한다. 지방자치단체 시대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초적 창업자들의 터전이 되어야하며 이는 곧 국가경제발전과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정책목표에도 부합하는 현상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지원 사업은 보다 체계적이면서 내실 있는 지원을 지방 정부 중심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며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특화에 부합하는 중소 벤처기업의 육성이 절실하다 하겠다.

특히 신기술사업자의 활발한 기술개발 노력 강화를 위하여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최근 논의되고 있는 벤처펀드를 통한 투자 유치 지원, 신기술제품 구매제도와 연계 지원 등의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 사료된다. 창업이전 또는 초기단계 창업지원이 부족한 형편에서 신기술창업자의 주요한 창업 촉진수단이 될 것이며, 신기술사업자의 지속적인 성장과 성공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별도의 창업지원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다양한 사업의 연계·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한시점이다. 향후 신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서는 신기술사업화를 위한 체제 속에서 사업간 연계·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 및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는 지역적 한계와 조사 자체가 제한적이었으며 인천시의 선정 특화업종의 정책적 지원방향 등은 고려되지 않았다. 다만 각 기관 입주업체를 일부 업체에 국한함으로써 인천시 전체의 산업 방향과는 다소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인천시와 인천지방 중소기업청의 지속적이며 꾸준한 중소 벤처창업기업의 창업유도 및 창업유지 가능한 정책방향이 요구되며 지역특성을 반영한 보다 세부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 양현봉 · 송하율 · 김홍석(2003), “창업보육정책의 평가 및 발전 방안”, 「산업연구원」
- 양현봉 · 송하율 · 김홍석(2002), “우리나라 창업보육센터 평가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
- 박규일 · 신건권 · 김연용 · 한상태(1999), “신기술창업보육센터의 현황과 운영합리화 방안”, 「중소기업연구」
- 하상조, “대학 내 창업보육센터 운영의 실태분석과 육성방안”, 한국국민경제학회 「경제학논문집」
- 박상문 · 이재희 · 이달환 · 배종태, “국내창업보육센터의 운영시스템 현황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정양현 · 이충섭 · 이종대(2003), “대학과 연구소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의 특성 및 창업보육 성과의 비교”, 「중소기업연구」, 제25권, 제3호.
- 신창호, “창업보육센터의 효과적 운영방안” -서울창업보육센터를 중심으로-
- 정양현 · 최수일 · 권철홍, “국가출연연구원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특성 및 창업보육 성과와의 관계”
- 이상석 · 최종호(2001), “창업보육센터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 제23권, 제4호.
- 하상조(2000), “대학 내 창업보육센터 운영의 실태분석과 육성방안” 「벤처경영연구」, 제3권, 제1호.
- 강병수 · 오덕성(1995), “대학주도형 기술창업보육센터의 발전방향” - 해외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지역연구」, 제11권, 제2호.
- 송광선(2000),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특성에 관한 연구” 「벤처경영연구」, 제3권, 제1호.
- 배종태(1994), “신생중소기업 종합지원을 위한 창업보육센터의 육성방안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역할을 중심으로 - 「경영연구논문지」
- 인천대 창업보육센터 · 인천전문대창업보육센터 · 인하대창업보육센터, ” 인천지역 창업보육센터 운영현황 “.
- 재능대 창업보육센터 · 인하공업전문대창업보육센터 · 경인여대 창업보육센터 · 인천기능대 창업보육센터 · 송도테크노파크 창업보육센터 · 한국여성경제인 연합회 창업보육센터 · 정보산업진흥원 창업보육센터
- 인천시(2004), “창업보육센터 지원육성계획 방안”

## Abstract

In today's world economy, technology and knowledge have become the key words for value creation. Since 1998, various research institutions and universities in Korea, with support from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have buckled to establish and operate incubating centers in order to foster such industries.

Even though these centers have been operated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of the establishment, it has been over six years now, and it is necessary to evaluate its overall performance before moving on.

Incubating a venture company results in not only technology innovation, but also jobs creation and economic growth. Knowing the importance of that, a government, at all levels, has supported the incubating centers as the most effective way to support venture companies in Korea.

Incheon now plays a great role as a hub of logistics and trade in North East Asia. In order to nurture the city as the center of Korean economy, the city of Incheon has financially supported various incubating centers in the city, in an effort to incubate potential venture companies with lack of business experiences.

It is imperative to find out what these companies need and how they evaluate the system at this point to develop a guiding principle of its operation as well as a careful selection process of a company in the future.

In section II of this research, a concept of an incubating center is defined. An objective, a policy of its operation as well as its structure are explained in this chapter with case studies of Incheon College. 'Resources' are divided into human resources and material resources. And the survey that 71 different companies (out of 164 companies in 10 different incubating centers) have participated in is included in this section as well.